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노동력재생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omestic labor- with emphasis on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울산전문대학 가족복지과
조교수 홍승아

Dept. of Family Welfare, Ulsan College
Assitant prof. : Seung-ah Ho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가사노동의 성격 |
| II. 서구 가사노동논쟁에 대한 검토 |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domestic labor in relation to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In this study I adopted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 the analytical term. Also I owed theoretical basis to the political economy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domestic labor and capitalist economy.

The family is a very important place which fuctions to maintain and change both the present and future labor, what is called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It also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total society.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is divided by 'gender division of labor' which allocates the responsibility to one gender (women) and exempts it to another gender (men).

In conclusion the domestic labor is the very basis of capitalist economy and it is also the preliminary condition to its system. So we can fully understand the capitalist economy with the 'visible' labor part and the 'invisible' domestic labor part inclusively. And we can also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labor market, which constitutes one economic system and fuctions in it.

1. 서 론

가사노동은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무임노동이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 혹은 경제와는 무관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비가시적인, 은폐된” 현실일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성격을 띠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전체사회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Himmelweit & Mohun, 1977; Gardiner, 1978; Molyneux, 1979; Smith, 1978; 손덕수, 1985; 김혜경, 1985 등 참조).

가사노동연구는 산업화와 더불어 진전된 가족의 발달과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있어서의 가족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레스키에 의하면 공장제체제가 발전되기 시작하는 19세기까지는 가족은 기본적인 경제의 단위였으며,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점차 가족에서 경제적인 생산을 이전하게 되고 이러한 분리하에서 남성은 가족부양의 책임자로서 집바깥에서 일하며 공적영역으로 나가게 되고, 여성은 주부와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자레스키는 “주부는, 노동자와 함께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특징적인 노동자”라고 지적한다(자레스키, 1976;64). 이 과정을 Borchgrevink는 가족과 일터의 분리, 소비와 생산의 분리, 공사의 분리, 사랑과 이해관계의 분리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Borchgrevink, 1995). 따라서 산업화는 여성들에게 임노동고용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 가사노동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생산이 가족에 기반한 경제(family-based economy)에서 공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가족은 자본주의 경제와 떨어진 영역에서 존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이 가족내에서의 가사노동을 통하여 자본주의경제의 필수요소인 노동자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사노동연구는 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가사노동의 역할분담이나 사회화 혹은 가사노동 가치평가, 가사노동 시간조사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연구되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의 관점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을 전제한 상태에서 가사노동의 효율적인 경영 혹은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 글은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내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의 성격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은 가사노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나아가서 전체 경제구조와 가사노동은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후의 전개과정은 우선 가사노동의 경제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으로서, 서구의 가사노동논쟁을 간단히 비판, 검토하면서 이를 통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적 성격, 그리고 자본주의경제와 가사노동의 관계 등의 문제를 수용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가사노동을 노동력의 재생산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성격을 살펴본 후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과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가사노동의 관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사노동이 갖는 관계를 가족과 노동시장을 연결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노동력재생산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이 가족이라는 영역내에서 수행됨으로써, 이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전체 경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가사노동-가족-경제”라는 구체적인 관계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가사노동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하나의 시론적인 연구노트이며, 기존의 문헌연구를 기반하여 연구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구성, 발전시킨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일반화된 논의가 아니라 하나의 시론으로서 위치를 가질 뿐이다.

II. 서구 가사노동논쟁에 대한 검토

서구에서의 가사노동논쟁은 여성노동에 대한 주요한 논쟁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최초로 가사노동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던 초기 논쟁자들로서 Benston, Dalla Costa, James, Seccombe 등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거나 혹은 잘못 이해되어온 가정에서의 여성노동이 갖는 경제적 기여라는 측면과 자본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이데올로기적, 생물학적 기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소콜로프, 1990;177). 즉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되었던 가정내의 여성의 역할을 문제제기하고, 이 여성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본주의경제에 갖는 경제적 기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후 가사노동논쟁은 수많은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훨씬 광범위하게 확산 발전되었다. 이들의 작업의 초점은 '가사노동의 정치경제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 논쟁은 이후 마르크시스트 혹은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논의들로 전개된다. 논쟁의 내용은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가 아닌가, 노동력 상품을 생산하는가 아닌가, 가치법칙에 종속되는가 아닌가, 생산적인가 아닌가 등의 문제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노동력 가치형성의 과정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이 사용가치를 낳느냐(Gardiner, Himmelweit & Mackintosh, 1980; Gardiner, 1978), 교환가치를 낳느냐(Secombe, 1974), 혹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잉여를 생산하는가(Harrison, 1973) 아닌가(Smith, 1978; Curtis, 1980; Briskin, 1980), 혹은/ 따라서 노동력 가치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가사노동은 생산양식 수준에서 볼 때 별개의 생산양식으로 존재하는가(Delphy, 1977; Harrison, 1973), 아니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부인가(Secombe, 1974; Gardiner, Himmelweit & Mackintosh, 1980) 등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전개된다.

이 시기 학문적 관심은 여성노동이었으며, 특히 이론적 문헌들도 마르크시즘의 리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마르크시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가사노동논쟁은, Beechey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엄청난 양의 지적 에너지가 이 논쟁에 소비되었고, 또한 틀림없이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스트의 이론적 작업의 중요한 국면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예컨대 가사노동이 사랑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노동이라는 점, 자본주의 생산양식내에서 명확한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진행과정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버린 듯이 보인다. 이들 논쟁을 간단히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사노동논쟁의 가장 큰 기여는 가정내의 여성노동이 경제적으로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노동을 하며, 자본주의경제에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의 보이지 않는 신비화된 무임의 가사노동이 자본주의에 의해 구성된 것이고, 오늘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지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즉 가족의 영역은 노동시장과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가사노동이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지원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콜로프는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로 여성은 산업예비군으로 "예비"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가 더욱 열악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소콜로프, 1990;160).

세 번째, 개념정의의 문제로서, 가사노동논쟁은 가사노동을 지나치게 협의의 개념(일상적인 노동력 재생산)으로만 정의내린 문제점과, 따라서 논의의 초점이 가사노동에만 집중된 나머지 ① 가사노동과 남성 가족임금,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전개가 불충분하고, ② 자녀양육의 문제를 간과하며, ③ 모든 여성문제를 주부문제로 일반화시키는 경향을 띠고, ④ 결과적으로 여성의 임금노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⑤ 논의전개가 지극히 기능주의적, 비역사적이라는 등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Beechey, 1987; 6-8). ⑥ 결국 협소한 경제적인 논쟁에 매몰된 나머지, 가정중심성(domesticity) 이데올로기라든지, 여성

의 가사노동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정책 등의 문제가 간과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Beechey, 1987:6-8; Maynard, 1985; Molyneux, 1979)

네번째, 제 논의들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방법론의 문제이다. 논쟁의 주요 양상은 각각이 기반하고 있는 방법론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혹은 잉여의 형태로서든 하여간 노동력 가치형성에 기여한다고 보는 일련의 긍정적인 입장들과 이에 대하여 고전적 마르크시스트 범주에 기반하여 이들 주장을 일축해 버리는 입장들이다. 전자는 주로 마르크시즘에서의 경제분석 범주를 원기점으로 하되, 이를 보다 외연, 확대시켜서 가사노동에 적용시킴으로써 자본-가사노동의 관계를 논의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후자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입장에서 서서 고전적인 가치이론을 고수하면서 여기에 가사노동을 삽입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반박하고 있다.

결국 10여년간의 격렬한 논쟁을 거치고서도 별다른 성과없이 논의의 정체결과를 결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방법론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필요가치와 잉여가치가 시장에서 임노동자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을 논의의 요지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재생산론은 가족내의 여성의 노동과 가족을 통한 노동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이라는 절대적 필연성을 가정하고 있으면서도, 자본 그 자체의 생산과 재생산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법칙은 이미 상품생산이 전제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사회적 생산영역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인데, 상품경제 밖에 존재하고 있는 가사노동 영역에까지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Barrett, 1980; Humphries, 1977 등 참조).

따라서 가사노동은 자본주의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내부논리에 직접적으로 적용받지는 않는다. 결국 두 입장이 부딪히는 문제는 가치론이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를 추상 수준에서만 다루다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동력 개념의 확인이라는 문제에 부딪힌 결과이기도 하다(Himmelweit & Mohun, 1977:24-28; Molyneux, 1979:4, 9; Smith, 1978; Briskin, 1980 참조).

마지막으로, 가사노동논쟁은 가사노동을 왜 여성이 하게 되었는가, 가사노동이 갖는 성별분업의 함축점을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결국 가사노동논쟁은 성별분업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성관계(gender relation)가 자본의 관계로 축소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¹⁾는 평가를 받는다(Barrett, 1980:24). 또한 “가사노동-가족-사회”간의 관련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²⁾.

이상에서와 같이 서구에서의 가사노동논쟁을 통하여 가사노동은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노동이며, 자본주의경제에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개념정의의 문제나,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후에서는 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에서 갖는 가사노동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성별분업구조 하에서 “여성-가정-가사노동, 남성-사회-임금노동”이라는 별개의 영역을 대별할 수가 있다. 이 구조하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남성의 임금노동과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가? 여성의 가사노동과 남성의 임금(혹은 임금노동)은 노동력재생산이라는 특성을 통하여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서 노동력재생산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은 결국 전체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시키게 된다. 이후에서는 먼저 가사노동을 노동력 재생산노동으로서 개념정의를 한 후, 임금과 가사노동의 관

1) 왜 여성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지의 성별분업의 문제는 가사노동논의에서 또다른 중요한 국면을 이루므로,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함.

2) 본문 3.3 자본주의경제와 가사노동 참조.

계, 자본주의 경제와 가사노동의 관계를 각각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I. 가사노동의 성격

1. 노동력의 재생산

Himmelweit와 Mohun은 가사노동을 “인간 그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생산하여, 매일의 그리고 세대적 기반 위에서 그들을 키우고, 유지하며, 살아있는 노동자로서 지속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Himmelweit & Mohun, 1977;28).

이 글에서는 가사노동을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재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환경과 물질과 정서를 제공하는 일이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세대적으로 재생산하는 일”로 정의하고자 한다. 예컨대 우리가 매일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마련하고, 입을 옷을 준비하고, 쾌적하게 쉴 공간을 배려해 주기 위하여 하는 일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보기, 요리, 설거지, 세탁, 다림질, 바느질, 청소, 집안 정돈 및 꾸미기 그외 가족구성원에 대한 애정과 정서적 배려와 돌보기 등등의 일과 출산 및 양육을 통한 세대적 재생산을 포괄한다(홍승아, 1993;156).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가사노동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다시 이 자체를 광의의 가사노동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출산과 양육, 즉 세대적인 노동력재생산을 제외하고 현재 노동자의 노동력을 직접적으로 유지, 재생산하는 과정(통상 이야기되는 요리, 세탁, 청소 등의 집안일과 그의 감정적인 보살핌 등)을 협의의 가사노동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Himmelweit와 Mohun은 가사노동의 특성을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점과 상품생산과 나란히 존재하는 사적 노동의 형태를 띤다는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Himmelweit & Mohun, 1977;28). 우선 가사노동은 (현물적인 존재로서의) 상품을 생산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개인 소비를 위한 실질적인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다양한 사용가치를 생산한다. 또한 개인은 다양한 사용가치를 소비함으로써 노동력재생산을 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력재생산은 두가지 차원에서 수행되며,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과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일상적 차원과 세대적 차원에서 각각 수행된다.

우선 일상적 차원에서의 노동력재생산이란, 노동력은 매일매일 사용되어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지속적으로 개인의 소비를 보충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게 된다(여기에는 장보기, 음식만들기, 빨래, 청소 등의 협의의 가사노동의 갖가지 형태가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노동력은 매일, 일상적으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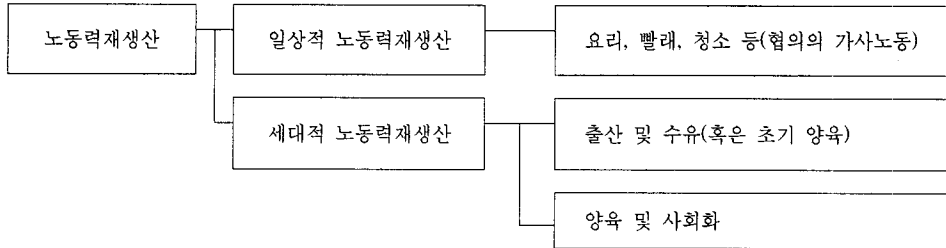
노동력은 또다른 의미에서 재생산되어야 하는데, 바로 종(種)의 재생산의 의미에서이다. 노동자는 늙어서 죽게 되고, 사회의 노동력 저장고는 새로운 노동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보충될 수가 없다(여기에는 출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력은 세대적으로도 재생산되어야 한다(Himmelweit & Mohun,1977;16)³⁾.

이상에서 살펴본 제 개념들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대적 노동력재생산의 문제를 출산 및 수유(혹은 초기 양육까지)와 양육 및 사회화로 나누어 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노동력 재생산을 출산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및 미래노동력의 유지로 개념지우는데 대해 Edholm 등은 출산 및 초기양육과 그 이후의 양육 및 사회화를 구별한다(Edholm, Harris & Young, 1977;104). 물론 자녀양육은 같은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양육의 내용은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즉 제2세대의 노동력을 출산하여 그들이 ‘인간 유아의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생물학적 인간존재의 완성’ 즉 자기생

3) 물론 이외에도 노동력재생산은 사회적 생산활동의 상당부분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노동력재생산은 노동계급이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의(임금노동에 의한) 생산을 포함한다. 또한 건강, 교육 등과 같은 국가의 용역설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매킨토쉬, 1981:109).

〈그림 1〉 노동력 재생산



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까지의 수유 및 보살핌으로 양육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바로 ‘인간 그 자체의 생산’(久場喜子, 1983)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재생산의 문제에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논쟁점이 ‘과연 노동력의 생산이나, 재생산이냐’의 문제이다. 흔히 상품이 ‘생산’되는 것에 비하여 노동력은 ‘재생산’된다고 말해진다. 이는 상품이 유형의 생산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대해 노동력은 ‘인간에 잠재해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Vogel, 1983; 138)으로서 쉽게 감지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인간에 내재해 있는 노동력을 단지 보충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생산으로 사용되는 듯하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노동력도 일상적, 세대적 기반 위에서 매회 ‘생산’되는 것이며, 이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Himmelweit & Mohun, 1977; 28)이다. 따라서 이는 노동력의 생산이자, 동시에 결과적으로 보면 재생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재생산에 있어서 노동력 재생산노동의 관계를 살펴보자. Vogel은 노동력 재생산노동을 사회적 필요노동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이를 전체 사회 재생산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필요노동은 ① 직접 생산자의 유지(직접생산자의 임금으로 구입한 생활수단을 적합한 형태로 소비시키는 노동), ② 비노동구성원(노인, 병자, 부인)의 유지, ③ 세대적 노동력교체(자녀출산과 양육)의 3가지로 분류된다(Vogel, 1983; 143-144). 따라서 노동력재생산은 바로 전체 사회 재생산을 위

한 생산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을 구성하는 것이다.

2. 임금과 가사노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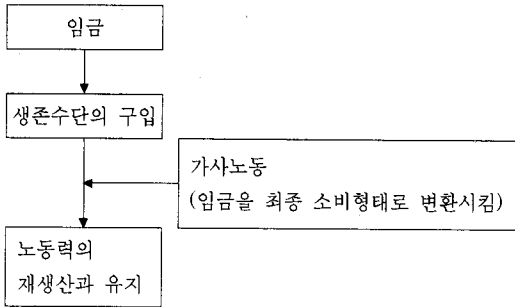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사노동과 임금노동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가사노동은 사적생산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다른 가족성원의 도움없이 개인적으로, 고립되어서 각각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노동/휴식의 엄격한 구분이 없다. 가사노동은 현상적으로는 자본주의 상품생산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자본과 직접적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Gardiner는 노동자에 의해 수행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임금이, 실제적으로는 노동자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곧 노동에 대한 지불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지불임을 밝히면서,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는 그 노동자를 재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주부의 가사노동에 의해 창출된 가치까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Gardiner, 1978; 174-175).

즉 임금의 형태로 받은 화폐는 생존수단을 구입하는 것으로 변형되고, 이 때 구입한 생존수단은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임금으로 구입한 생존수단을 최종의 소비형태로 변환시켜 노동자의 노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임금과 가사노동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2〉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런데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가사노동은 노동력재

〈그림 2〉 임금과 가사노동의 관계



생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임금은 이를 무시하고 결정되어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적 노동으로도 평가되고 있지 않다. 이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우선 전체 상품경제 속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재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가사노동은 노동력재생산이라는 노동을 통하여 이 전체경제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3. 자본주의경제와 가사노동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다 확대시킨다면 전체 자본주의경제와 가사노동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과연 자본주의경제는 가사노동과 별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인가? 혹은 가정과 사회는 여전히 별개의 분리된 체계인가?

먼저 정치경제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 생산관계 및 사회관계의 기본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관계는 상품생산자 상호간의 교환관계, 즉 상품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따라 독특한 사회관계가 전개되는데, 이를 소위 자본-임노동관계라 부른다. 여기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무소유자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행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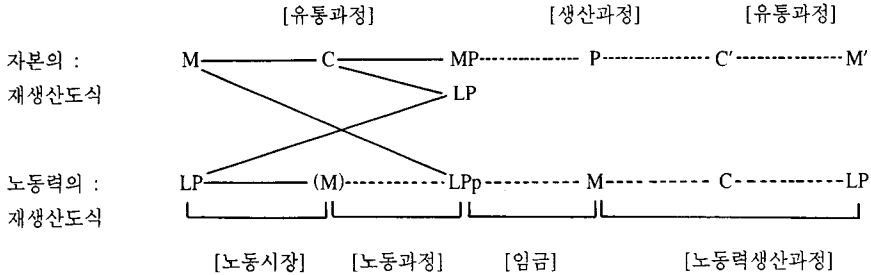
통하여 노동력도 상품으로 판매된다는 특유한 사회관계가 전개됨으로써 비로소 상품관계가 전면화된다(富塚良三, 1976;25-50 참조). 따라서 이러한 일정한 역사적 형태를 가진 사회관계 속에서 자본주의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재생산된다. 우선 전체 사회재생산의 관계 속에서 노동력재생산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기존의 자본과 노동의 재생산도식으로부터 출발해 보자.

자본가는 화폐자본(M)을 투하하여 그 일부를 생산수단(MP)으로, 다른 일부를 노동력(LP)으로 형태 전환시키고, 이 (인적, 물질) 생산요소의 결합에 의해 생산을 행하며(.....P...), 이렇게 하여 생산된 상품(C')을 모두 자기의 소유물로 만든다. 그런데 생산물(C') 속에는 생산과정을 통한 가치증식이 포함되어 있어서(C')C 자본가는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증식된 화폐자본(C')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노동자는 노동력(LP)을 자본가에게 판매(LP - (LPp)하여 얻은 임금(M)으로 자본가로부터 생활자료(C)를 구입하고, 그것을 소비하여 노동력을 생산. 재생산한다(.....LP)(富塚良三, 1976;123-127 참조). (그림에서 ___ 부분은 가시적인 부분이고 부분은 보이지 않는 은폐된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해 내는 노동력에 대한 것이다.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물질,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게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상품으로써 재생산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즉 노동력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는 생산과정에서 지출되고 소비된다. 지출된 에너지는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 판매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의해 생활자료를 구입하여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다시 노동력을 회복시킨다(竹中惠美子, 1983;20). 따라서 “노동력의 재생산은 생산의 전제조건”이며,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노동력의 유지와 교체문제가 요구되는 것이다(Vogel, 1983, 138-139).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노동력재생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재생산이 수행되는 사회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영역에서 관계지워지는 노동력재생산 과정과 다시 이것

〈그림 3〉 자본과 노동력의 재생산도식



* M:화폐, C:상품, MP:생산수단, LP:노동력, P:생산과정, Lpp:생산과정의 노동력

* — 가시적 부분, ---- 비가시적 부분

(富塚良三, 1976;124에서 재작성)

이 가정영역에서 완결되는 부분까지를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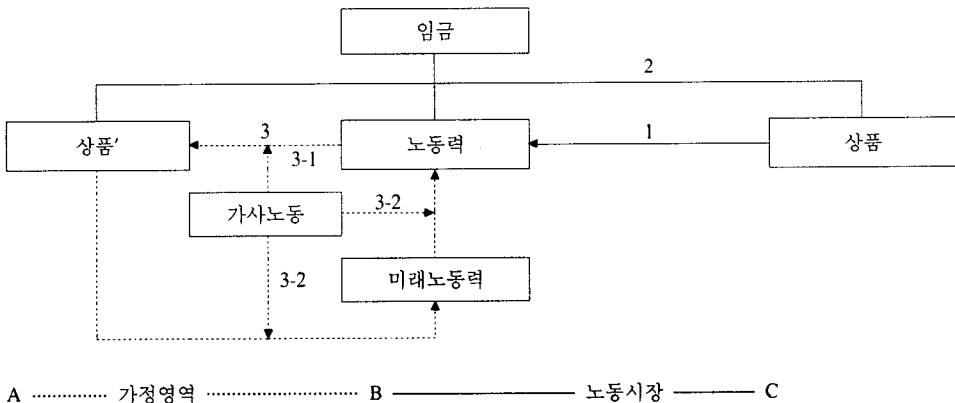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이 도식에서 노동력(LP)의 최초의 생성과 그것의 (일상적, 세대적) 재생산은 어떻게 가능하게 설명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노동자의 문제에만 한정시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림 3〉에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판매되는 과정(LP- (M))과, 노동과정을 거쳐 소모된 노동력이 다시 재생산되는 과정(C... LP)에 주목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변형된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이 수행되는 실제 사회관계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 4〉와 같다. A에서

B까지의 영역은 가사노동이 수행되는 가정영역이며, B에서 C까지의 영역은 임금노동이 수행되는 노동시장영역이다. 위 그림을 앞에서 살펴본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설명해 보자. 우선 노동시장에서 판매된 인간노동력은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1). 그리고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으로 구입한 상품'(2)를 가지고 다시 내일의 노동력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을 필요한 소비형태로 변형시키는 부가적 노동(3)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시 현재노동력을 매일 생산해내는 일상적 노동력재생산(3-1)과 노동력의 세대적 교체를 위한 세대적 노동력재생산(3-2) 과정을 포괄한다(홍승아, 1993;171).

〈그림 4〉 노동력의 판매·생산과정



우선, 현재사회에서 노동력재생산이 실제로 수행되는 노동의 장(場)은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노동력을 일상적으로, 세대적으로 재생산하는 노동의 사회적 의미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부여받음으로써, 비사회적, 비생산영역으로, 자연영역으로 규정되며, 무가치적인 성격으로 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자본은 노동력재생산에 대한 책임, 비용 등의 제반 문제를 개별 가정영역에 부담시킴으로써 전체 노동력생산과정 중의 일부에만 관여(생활자료에 필요한만큼의 임금만 지불)할 뿐 나머지 과정은 개별 수준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족은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노동자를 유지시키고 세대적으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場)으로 기능하며(Vogel, 1983), 전체사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자로서 여성이 하는 일은 성인 노동자를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회복시키고, (사회체계가 요구하는) 특수한 심리적 능력을 갖춘 자녀를 양육한다(Chodorow, 1978;100).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A에서 B의 과정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즉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재생산하는 가사노동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서 결코 경제관계의 수평면에서 사회적 생산의 장(場)으로 부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가진 자본-가사노동의 관계야말로 "노동력 상품화체제로서 자본주의경제의 역사적, 제도적 전제"(久場嬪子, 1983; 109)가 되는 것이다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림 1>에서는 숨겨져 있던 노동자의 성별차이가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에서 남녀 모두 1, 2, 3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3의 과정에서는 성별분업에 의해 직접 노동(노동력 재생산노동)을 해야 하는 성(여성)과, 이 부분의 노동에서 면제되어지는 성(남성)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재생산노동은 엄격히 성에 따라 행위자와 이로부터의 면제자를 구분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성역할구분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성역할구분에 기반하여 성역할이데올로기가 구축되게 된다. 계급이데올로기는 한 계급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사물과 현상을 이론화하고 일정한 정향을 갖고 행동하도록 한다(최장집, 1985;51). 마찬가지로 성이데올로기도 일정한 행동의 정향을 구축하고, 이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여 의식이 형성된다. 특히 성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형성되는 사회관계(성별분업체제)를 원활히 유지, 기능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편 노동력재생산의 사회적 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통제메카니즘이 사용되고 있다. 즉 가족의 원활한 기능유지, 성별분업의 확고한 구축 및 강화 등의 기능으로 국가는 전반적인 재생산조건에 개입하고 있으며, 국가는 일정한 형태의 가족의 유지, 기능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McIntosh, 1978; Mackinnon, 1983).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노동력재생산의 실제적인 과정은 임금으로 구입된 생활자료를 필요한 소비형태로 변형시키는데 수반되는 노동과정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가족은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노동자를 유지시키고 세대적으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노동력재생산의 중요한 장(場)으로 기능하며(Vogel, 1983), 전체사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셋째, 그런데 자본주의경제하 노동력의 재생산노동은 성별분업에 기반하여 개별가정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비가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IV. 결 론

이 글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동력재생산개념에 근

4) Behnolt-Thomsen 은 "축적 그 자체의 기반인 인간의 노동할 능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자본주의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들 과정을 사회적 생산과 분리시켜져 있는 현실인양 받아들이는 것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로 지적한다(Behnolt-Thomsen, 1981;23).

거하여 가사노동의 성격을 정의하고, 가사노동을 가족영역과 노동시장영역을 연결시켜 그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가사노동의 특성과 수행형태를 파악하고 가사노동연구의 이론적 시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서구에서의 가사노동논쟁을 통하여 가사노동은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노동이며, 자본주의경제에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밝혀낼 수 있었다.

둘째, 가사노동의 개념정의를 통하여 가사노동을 노동력재생산노동으로 성격지었으며, 이 때 노동력재생산은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재생산과 세대적인 노동력 재생산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 가사노동은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와 완전히 다른 장소와 관계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임금으로 구입한 생활자료를 최종의 소비형태로 변환시켜 자본주의경제의 필수요소인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게 된다.

넷째, 따라서 가사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노동이며, 자본주의 경제는 이 노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일상적인 노동력과 세대적인 노동력을 충당받으며,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여성-가정-가사노동, 남성-사회-임금노동”이라는 현재의 성별분업구조 하에서 가사노동을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지워 살펴보았다.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이 수행되는 실제 사회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 두 노동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전체 경제구조가 형성, 유지되는 것이다. 가사노동은 표면적으로는 사회 혹은 경제와 떨어진 별개의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동력재생산이라는 노동의 특성을 통하여 사회의 노동력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세대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사회에서 노동력재생산이 실제로 수행되는 노동의 장(場)은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족은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근원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영

역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비가시적인 가족영역까지 경제적인 영역으로 포괄되어야만 가족과 노동시장의 상호연관성과 맞물림의 전체 경제구조(가족-가사노동-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가사노동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대상이 노동자계급의 가사노동에만 집중되어 전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점, 가사노동의 전체 범주 중에서 집안일, 자녀양육에만 치우쳐 출산과 초기 양육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성격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사노동의 이데올로기적, 심리적 성격이 배제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는 가사노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위한 하나의 시론이었으므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성격논의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매킨트쉬, 머린(1981). 성과 경제: 성별분업과 여성의 예측. 제3세계 여성노동. 서울:창작과 비평사
- 소콜로프, 나탈리(1990).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역. 서울:이대출판부.
- 손덕수(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편. 한국여성과 일. 서울:이대출판부.
- 자레스키, 엘리(1976).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김정희 역. 서울:한마당.
- 최장집(1985). 그람시와 헤게모니개념. 국가이론과 분단한국. 서울:한울.
- 홍승아(1993). 결혼과 가족. 서울:십일월출판사.
- Barrett, M.(1980). *Women's oppression today*. London: Verso.
- Beechey, V.(1987). *Unequal work*. London:Verso.
- Benholt- Thomsen, V.(1981), Subsistence production and extended production, in *Of marriage and*

- the market*, London:CSE Books.
- Benston, M.(1973),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or, *Monthly Review* 21(Sep.,1969; 13-27) excerpted in *Women in a Man-Made World:A Socioeconomic Handbook*, N.Glazer & H. Wachrer(eds), Chicago:Rand McNally.
- Borchgrevink, T.(1995), *Labour of Love:Beyond the self-evidence of everyday life*, England:Avebury.
- Briskin, L.(1980). Domestic labor: A methodological discussion. in B. Fox(ed.) *Hidden in the household*. Ontario:The women's press.
-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urtis, B.(1980). Capital, the state and the origins of working class household. in B.Fox(ed.). *Hidden in the household*. Ontario: The women's press.
- Dalla Costa, M. and S. James(1972), *The power of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 Bristol, England:Falling wall press.
- Delphy, C.(1977).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marriage and divorce. in *Close to home*. London:Hutchinson & Co.
- Edholm, F., Harris, O. & Young, K.(1977). Conceptualising Women. *Critique of Anthropology* Vol. 3 No.9-10, 101-116.
- Gardiner, J.(1978), Women's domestic labour, in Eisenstien ed., *Capitalist patriarchy and the case for socialist femin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Gardiner, Himmelweit & M. Mackintosh(1980). Women's domestic labor. E. Malos(ed.). *Politics of housework*. New York:Schocken Books.
- Harrison, J.(1973). Political economy of housework. *Bullitin of the conference of socialist economists* Vol.III no.1.
- Himmelweit & Mohun(1977). Domestic Labour and Capital.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 No.1.
- Humphries, J.(1977). Class struggle and the persistence of the working class famil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1 No.3, 241-258.
- Mackinnon, K.(1983). Feminism, marxism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Signs* Vol. 8 No.4, 635-658.
- McIntosh, M.(1978). The state and the oppression of women. in A. Khun and A. Wolpe (eds.) *Feminism and Materialism* London: Routeledge & Kegan Paul 매킨토쉬, 여성과 생산양식. 서울:한겨레로 번역되어 있음.
- Maynard, M.(1985). Houseworkers and their work. R. Deem and G.Salaman(eds), *Work, culture and society*, Milton Keynes:Open Univ. Press.
- Molyneux, M.(1979). Beyond the domestic debate. *New left review* 116, July-August 1979, 3-27.
- Secombe, W.(1974). The housewife and her labour under capitalism. *New left review* 83. January-February 1973, 3-24.
- Smith, P.(1978). Domestic labor and Marx's theory of value. A. Khun and A. Wolpe (eds.) *Feminism and materialism*. London:Routeledge & Kegan Paul 매킨토쉬, 여성과 생산양식. 서울:한겨레로 번역되어 있음.
- Vogel, L.(1983). *Marxism and the Oppression of Women*. London:Pluto Press.
- 久場嬉子(1983). "資本制經濟와 女子勞働", 竹中惠美子編, 女子勞働論, 東京:有斐閣.
- 富塚良三(1976). 경제학원론. 김무홍역(1983). 서울:전예원.
- 竹中惠美子(1983). 竹中惠美子編, 女子勞働論, 東京:有斐閣.